

종이 역사에 대한 소고 - '쥬히'와 '수'

(한국지기공사)

김순철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의 일상용어도 세월에 따라 많이 변화하여 왔다.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을 보면 백제에서는 모자를 '관(지금도 관으로 쓸 때가 있다)', 저고리를 '복상', 바지를 '혼'이라 했으며, 신라에서는 모자를 '유자례(遺子禮)', 저고리를 '위해', 바지를 '거반', 신발을 '세'라 했는데, 당시 신라에는 문자는 아예 없고 백제사람들이 통역해주지 않으면 위(魏)나라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¹⁾ 그 후 고려는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왕명 앞에 모두 '충(忠)'자를 붙여 이름을 지었고, 충렬왕 이후로 6대 왕들은 모두 원(元)나라 공주를 모셔다가 국모로 하였으니 그 공주가 고려로 시집을 때는 몇 백 명의 시녀들을 끌고 왔다. 그래서 궁중에서 쓰이는 용어에는 수라상(水刺床), 무수리(水腸易), 아씨(阿氏), 연지곤지, 마마(媽媽) 등 대부분이 몽고말로 바뀌었다.²⁾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용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쩔지 꺼림칙하다. 다만, 현재 몽고는 종이를 '에야가수', 청(淸)나라의 근본인 만주는 '호아센', 티벳은 'Sokbu'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종이는 몽고어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言語)은 문자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고 문자가 들어오면서 말을 문자로 표시하였을 것이다.

옛날의 '이두문(吏讀文)'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말을 한자음으로 표기하였으니 뜻으로 보면 전혀 딴 의미거나 무의미한 것이지만, 발음만으로 적으면 그것이 우리말이 되었다. 이런 이두문은 우리와 함께 일본에서도 쓰였으며 오늘날에는 중국에서도 외래어를 표기할 때 마치 우리의 이두문격으로 발음을 붙여 표기하고 있다.

Kentucky를 '켄더치(肯德基)', Golf를 '까오얼후(高兒夫)'라 표시하고 미국 자동차인 Ford를 '푸후터(富特)'라 표기한다. 원래는 발음으로 따서 부르기로 했지만 한자는 하나 하나가 뜻이 있으니 읽거나 부를 때마다 뜻이 연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발음대로 표기는 하되 뜻도 좋은 한자를 택하는 작명가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엉뚱한 경우도 있다. Hot dog을 '러겨우(熱狗)'로 표기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Hot dog은 결코 개고기가 아닌데도 개고기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

역사는 누구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두 기록만을 보고 참고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처럼 과거 수 천 수 백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역사가 어떻게 어떻게든 사람들 모두가 위작(僞作)일 수는 없어도 확실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훈민정음 중에서「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의 세종대왕 한글 창제 서문을 보면 여기에서 중국이란 어디를 지칭하는지 확실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중국이라고 호칭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속의 용자례(用字例)를 보나 옛날의 옥편을 봐도 '두(豆)'자를 '콩 두'라 적고 있으니 콩이라는 우리말은 벌써 있었기 때문이며, 해산물 중의 새우를 '사배', 아우를 '아사', 뱀을 '바얌', 원숭이를 '납', 두꺼비를 '두텁', 인체의 팔을 '발', 부엉이를 '부형', 우박을 '무뢰'라 하고 종이를 '쥬해(쥬히)'라 했으니, 쥬해는 옛날의 우리말이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그보다 더 오랜 옛날부터 쥬해라고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고려 15대 숙종왕 8년(1103년)에 송(宋)나라 사신을 서장관(書狀官, 요즈음으로 말하면 기록서

1) 종이역사(김순철 저) p154~p159

2)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 (이재범 외) p65

사)으로 따라온 손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를 보면 당시에는 종이를 “수”라 했기 때문이다³⁾

손목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으므로 한 자음을 빌어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였는데, 그 어휘가 자그마치 360이나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우리말과 어휘를 기록한 이두문(吏讀文)인 것이다.

그 360 어휘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또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별 기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손목은 이것을 고려방언이라고 했으나 그가 머무른 곳은 개경(개성)이며 개성은 당시의 수도였으므로 방언이라 하기보다는 고려의 표준말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반포연도 1447년(세종

<손목(孫穆)이 표기한 당시의 우리말 단어>

계림유사 중의 어휘번호	한자단어	한자를 빌어 표시한 우리말	지금의 뜻
9	雷 뢰 (우레, 천둥)	天動 천동	천둥
15	鬼 귀 (귀신)	幾心 기심	귀신
25	七 칠 (일곱)	一急 일급	일곱
30	三十 삼십	實漢 실한	서른
32	五十 오십	舜 순	선
43	前 전 (앞)	記載 기재	그제
56	山 산 (되)	每 매	되
57	石 석 (돌)	突 돌	돌
58	水 수 (물)	沒 몰	물
64	井 정 (우물)	烏沒 오몰	우물
67	木 목 (나무)	南記 남기	나무
68	竹 죽 (대)	帶 대	대나무
74	梨 이 (배)	敗 패	배 (과일)
91	牛 우 (소)	燒 소	소
98	馬 마 (말)	末 말	말
136	祖 조 (할아버지)	漢了秘 한료비	할아버지
166	耳 이 (귀)	愧 괴	귀
167	口 구 (입)	邑 읍	입 (mouth)
168	齒 치 (이)	你 니	이 (teeth)
177	手 수 (손)	遜 손	손 (hand)
178	足 족 (발)	潑 발	발
181	洗手 세수	遜時蛇 손시사	손을 씻다
190	鹽 염 (소금)	蘇甘 소감	소금
213	麻 마 (삼)	三 삼	삼
249	尺 척 (자)	作 작	жат대
251	斗 두 (말)	末 말	한말, 두말의 말
271	齒刷 치쇄	養支 양지	양치질
288	硯 연 (벼루)	皮盧 피로	벼루
290	紙 지 (종이)	垂 수	종이
300	弓 궁 (활)	活 활	활

3) 계림유사 (강신항 저) p207~214

4) 中國造紙技術盛衰史 (陣大川 저) p7

5) 百万塔 創立50周年記念特別? p143~190

29년)보다 344년 전의 기록이니 종이를 조해라고 하기 전에는 “수(垂)”라고 했음이 분명하다.

종이역사의 종주국이라는 중국의 종이 호칭을 보면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은 종이 이름(紙, 帛, 今紙 등)이 있지만, 종이박물관은 어디까지나 ‘造紙博物館’이다⁴⁾

이웃나라 일본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종이를 다해(栲), 타후(太布), 가미(紙), 시(紙), 페이퍼 등으로 불려오지만 종이박물관은 역시 현대어로 ‘가미(紙)의 박물관’이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종이박물관을 순방한 일이 있어 이것을 정리하여 “종이야기”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바 있다. 그 때 여러 나라마다 다른 종이 이름을 찾아본 일이 있는데, 그리스는 Papyros, 덴마크는 Papyrus, 영미는 Paper, 프랑스와 독일은 Papier, 스페인은 Papel, 스웨덴은 Papper, 터키는 Kaget, 아랍은 Kaghid, 인도는 Kagad, 말레이시아는 Kayitam, 태국은 Kadat, 이탈리아는 Carta, 러시아는 Bumaya, 베트남은 Guay라 하지만, 어느 나라나 현재의 용어로 종이박물관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솔제지의 종이박물관에 뒤이어 계성제지도 종이박물관을 열었는데 그 이름이 ‘조해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옛 것을 전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현재의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어찌서 조해박물관이냐고 물어보면 그 때마다 설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어도 아닌 조해를 빌어다 ‘조해박물관’이라 하는 것도 특이하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 다른 종이박물관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을수록 부실하고 개인소장품 같은 것의 박물관이 되고 만다. 종이의 자료 몇 점을 모아놓고 종이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기존의 박물관과 합해서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핍하면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할지 모르나 잘해나가는 예는 백 번이라도 본받아 마땅하다.

일본의 ‘종이박물관(紙の博物館)’의 전신이름은王子제지의 ‘제지기념관(製紙記念館)’이었다.⁵⁾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미군정이王子제지를 3개사로 분할하였는데 그 이름이王子·本州·十條의 3개 제지회사였다. 이렇게 분할되고 보니王子제지의 과거사를 기념해야할 필요가 있다하여 ‘제지기념관’을 만들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그 자리는王子제지 공장 구내로 해야했다. 마침王子제지王子공장(지금의王子電鐵驛 부근) 중의 전기실이 전쟁 중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1950년 6월이었고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1950년 9월이었다. 이어 1952년에 ‘재단법인 제지박물관(財團法人 製紙博物館)’으로, 1965년에는 ‘재단법인 종이의 박물관(財團法人 紙の博物館)’으로 개명했다.

출발 당시는 순수 제지회사만을 회원사로 하였는데 그때 역원(役員)과 관계 제지회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理事長	나카지마(中島慶次)	王子製紙
副理事長	세키(關 義城)	三菱製紙
理事	니시(西 濟)	十條製紙
"	다나베(田辺武次)	本州製紙
"	나카무라(中村 恒)	北越パルプ
"	시마무라(島村 芋三)	國策パルプ
"	나리타(成田潔英)	記念館長
監査	오오카와(大川鐵雄)	山陽パルプ
"	다카다(高田良作)	東北パルプ

그 후 1978년부터는 제지회사뿐만 아니라 초지용구 메이커와 유통회사인 대리점까지 포함시켜 평의원사를 43개 사로 확충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지 메이커 26개 사, 초지용구 메이커 4개 사, 종이제품 대리점 13개 사, 기타 명예고문이라 해서 신무라이즈루(新村出) 東京大 교수 외 11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일본 최대의 ‘종이박물관’이 되었는데, 東京都의 도시 계획에 따라 개관 50주년을 기해서王子제지 공장부지에서 2000년 6월에 현재의 아스카산(飛鳥山) 공원 내에 신관을 지어 이사했다.

이곳의 소장품은 17,500건인데 그 내역을 보면 아

<소장품 입수별 비율(%)>

	기증	구입	불명	건수	비율(%)
수록지	68	9	23	4660	27
양지	100	-	-	1890	11
문서	75	8	17	2140	12
사진과 그림	72	14	14	810	5
수록지제품	50	43	7	3270	19
양지제품	89	11	-	2890	16
제지용품	99	1	-	590	3
제지원료	100	-	-	200	1
기념품	100	-	-	530	3
참고품	74	19	7	520	3
합계	827	105	68	17500	100

래와 같이 수록지가 27%로 제일 많은 4,660점이나 된다.

수록지 4,660점 중 일본 것이 3,860점이고 외국제품이 980점인데 그 중 26%인 254점이 우리나라 것으로 대부분 조선시대 것이다.

소장도서만도 7,920점이고 기관지「백만탑(百萬塔)」의 발행부수도 110호에 달한다. 운영비는 대부분이 회원사의 후원회비로 충당되고 극히 일부분이 입관수수로 충당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종이박물관'은 종이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개인들이 전폭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어서 그 자료나 전시규모면에서 세계 제일 큰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의 종이 역사는 일본보다 앞서 있으나 양지의 경우 그 규모나 생산능력이 작은 데다가 그 자본도 취약하여 종이역사 박물관에 큰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최근까지 두 개의 종이박물관이 개관되었지만, 모두 내용이 부실하고 소규모여서 종이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있다. 거기에다 하나는 종이박물관이고 하나는 조해박물관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름도 내용도 찢겨져 분산된 기분이다.

종이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모두 합심해서 하나의 박물관으로 발족하고 앞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분들도 기존의 박물관에 적극 협조 보강했으면 한다.